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3일 (음력 12월 18일) 수요일

‘지구 온난화’ 전남 아열대작물 재배 급증

지난 2009년 대비 19ha 증가한 226ha
권역별 규모화·단지화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농업 클러스터 조성도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 지대로 바뀌면서 전남지역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

전남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아열대작물의 규모화와 단지화를 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226ha로 지난 2000년 19ha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비파(76.9ha), 부지화(44.1ha), 감귤(31.5ha), 레드향(22.3ha), 백향과 (8.1ha), 천혜향(7.6ha), 커피 (4.3ha), 망고 (4.6ha), 파파야(2.1ha) 등 종류도 다양하다.

부지화(한리봉)와 감귤, 천혜향, 레드향 등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던 아열대 품종만 하더라도 전남지역에서 100ha에 육박하고 있다.

아열대 채소 면적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아열대 채소 보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16농가에서 총 53.8ha규모의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콜라비 22.9ha 여주 19.1ha, 아스파라거스 9.1ha, 차요태 0.2ha, 얌빈 0.1ha 등의 순이다.

강진 70농가(15.5ha)와 해남 51농가(15.1ha)에서 아스파라거스와 여주, 콜라비 등을 재배하고 있다. 신안 41농가(11.8ha)는 여주와 콜라비를, 화순 14농가(4.9ha)가 아스파라거스와 차요테, 얌빈 등을 각각 재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2020년 1000ha를 넘어설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남농업기술원은 아열대작물 재배의 규모화와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부서해안지대(자유무역지대)에 속하는 함평군,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남부해안지대 고흥·진도군, 애플망고 재배단지 조성 ▲동남경제자유지대 순천시, 농촌체험 관광형 열대과수(애플망고) 단지조성 ▲북부산간지대에 속하는 화순군,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등으로 5개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된다.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업 클러스터에서는 기후적응 기술, 아열대 작물재배, 식물다양성, 가상재해 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청년농업인 창업, 작물별 생산 및 가공유통, 인프라구축 등 6차산업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에코생태식물공원도 부속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열대작물 경쟁적 도입에 따른 농가 소득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통 쌀엿’ 만들기에 한창 담양군 창평면에서 설을 맞아 밀려드는 주문에 엿가락을 늘이느라 분주하다. 창평 쌀엿은 담양에서 나온 대숲 친환경 햅쌀 등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옛날 전통방식 그대로 가마솥과 장작불을 이용해 고유의 맛과 정성이 담겨있다.

목포·완도권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감소세

최근 4년 동안 중대사고 한건도 없어

목포와 완도권 연안여객선의 해양사고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간 목포·완도권에서 운항중인 연안여객선의 전복과 침몰, 폭발 사망 및 해양오염 등 중대한 해양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타 해양사고의 연간 발생건수도 2015년 35건에서 2016년 38건으로 늘었으나 2017년 28건, 2018년 23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항로는 신규항로 신설 등으로 여객선이 꾸준이 증가(65척→73척→77척→80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0.54건→0.52건→0.36건→0.29건)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2015년 4월부터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사안전감독관제는 사고발생이 없거나 적은 여객선은 지도·감독 횟수를 경감한 반면 사고발생률이 높은 여객선은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이용객과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캠페인과 홍보물, 리플릿 배부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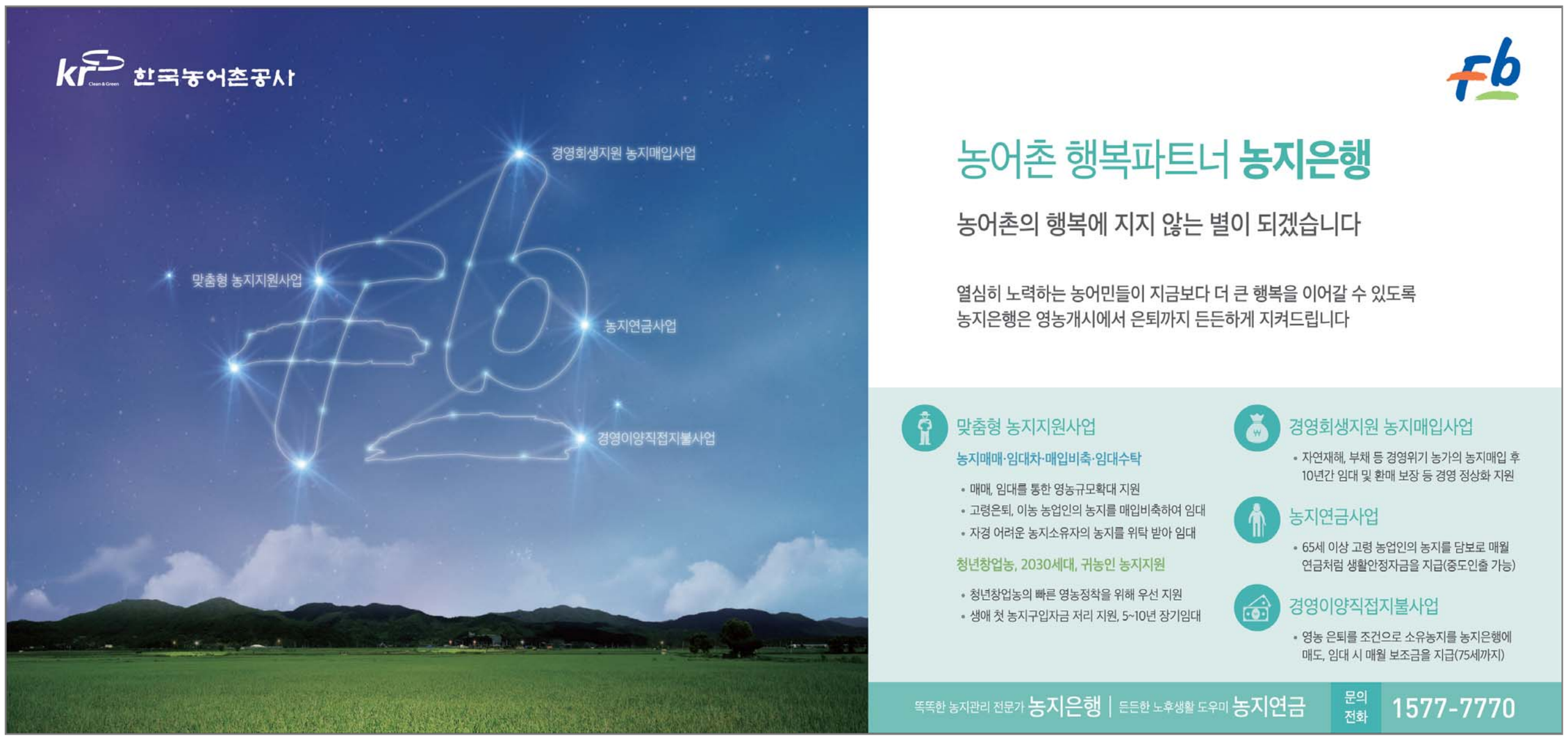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연안여객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hoto 漫評

점입가경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목포가 자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간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당의 ‘간판’격인 박 의원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평화당까지 나서면서 개인과 당의 설전으로 몸집이 커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의원은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혜원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부동산 매입이)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선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느냐”고 비아냥댔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